



## 즐거운 추수감사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MLSAAF 참가자 여러분께,

참가자분 그리고 가족분들께 MLSAAF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성원과 감사드리고자,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이하여 인사드립니다! 참가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연구 참여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경험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뉴스레터를 통해,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연구팀원들 소개, 아시아계 미국인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MLSAAF 설문, 인터뷰가 어떻게 연구에 반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MLSAAF 팀은 제 4차 자녀 참가자 설문조사에 이어, 아시아계 미국 젊은이들의 정신건강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추가 연구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4차 설문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보내드린 기프트 카드를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기프트 카드가 있는 메일함을 다시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추수감사절 연휴 보내시기 바라며, 뉴스레터도 많은 관심 가지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MLSAAF 연구팀 드림



## 제 4차 연구 결과가 곧 나옵니다!

MLSAAF 팀은 Russell Sage Foundation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제 4차 설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제 1차 연구 당시에는 아동이었던 참가자들은 이제 모두 젊은 성인이 되었고, 저희는 제 4차 설문데이터를 사용하여, 2021년의 인종차별 경험이 참가자들의 투표, 자원 봉사, 정치 활동 등 다양한 유형의 시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COVID-19와 관련된 인종 차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수 인종/민족 청소년의 고유한 발달 과정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곧 나올 제 4차 연구 결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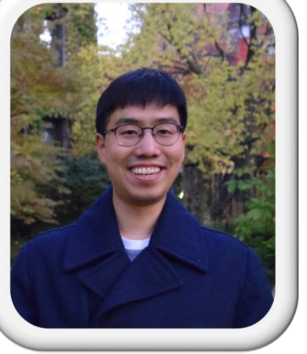


## MLSAAF 구성원 소개



### Hillary Nicole Peregrina를 만나보세요

Hillary는 시카고 대학 사회복지대학원의 대학원생으로, 사회복지학 중 임상연구에 중점을 두고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시카고대학교에서 사회 복지학 공부를 하기 전, 그녀는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교에서 아시안미국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과 Pin@y Educational Partnership에서 민족학 강사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그녀는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에 들어가, 아시아계 미국인과 이민자 가족의 문화에 적합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임상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궁극적으로 아시아계 미국인 어린이와 청소년 정신건강, 심리-사회 발달, 시민 참여, 비판적인 인종 의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 이외 여가 시간에는 그녀는 펠로톤 운동, 네이비피어 및 다운타운 산책, 시카고 탐방을 즐깁니다.



### 정은석을 만나보세요

은석은 2019년 가을 MLSAAF 팀에 합류한 박사과정 학생 연구조교입니다. 그는 현재 시카고대학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에서 '소수 인종 간 건강 불평등', '소수 인종 및 이민자 인구 간 정신건강관련 서비스 이용률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MLSAAF 연구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임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NIH 미디어에 실린 Michael Park의 연구를 소개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젊은이들의 경우, '인종차별/편견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차별의 정신적 해로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필리핀계 미국인 젊은이들의 경우는, 민족적 자부심이 차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막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관련 연구결과 링크로 연결됩니다)**

한국계 미국인 젊은이: 사회의 인종차별/편견에 대비하라는 부모의 조언은 인종 차별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했습니다.

미국 태생의 필리핀계 미국인: 민족성에 대한 자부심과 다른 집단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주의하라는 부모의 가르침은 인종 차별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및 필리핀계 미국인 모두: 연구 참가자들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더 많은 인종 차별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차별 경험 증가 추세는 참가자들의 정신건강 문제 심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NH가 소개한 연구 내용 (계속)

본 연구는 차별적 경험으로부터 소수 민족 아동들을 보호하는데  
어떠한 대처 전략이 도움이 될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 배경: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0% 증가했습니다. 이 중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비율은 20%로 미국의 다른 인종이나 인종 집단보다 많았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차별경험은 우울증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수 민족 부모들은 **인종/민족 사회화 (Racial Ethnic Socialization)**를 통해 자녀가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인종/민족적 차별 경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종/민족 사회화를 통한 사전적 대처 전략은 주로 세 가지 형태를 띠었습니다.

- 1) 편견에 대한 준비: 부모가 자녀에게 언젠가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겪거나 인종차별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 2) 타인종에 대한 불신: 부모가 다른 인종 및 민족 집단과 관계를 형성할 때 주의할 것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 3) 민족문화의 사회화: 민족문화의 가치, 역사, 언어, 민족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Michael Park이 주도한 본 연구는 시카고 지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들과 필리핀계 미국인들 사이에 이러한 형태의 인종/민족 사회화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어떠한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팀은 2014년부터 시작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종적연구 데이터를 분석했고, 이 연구에는 378명의 필리핀계 미국인 젊은이들과 408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참여했습니다. 2018년까지 참가자들은 그들의 정신건강 상태, 인종 차별 경험,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인종 편견에 대해 준비시켰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 결과:

전체적으로, 한국계, 필리핀계 두 그룹 모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차별이 증가했고, 우울증 증상과 자살 생각이 증가했습니다. 필리핀계 미국인 청년들의 경우 외국 태생에 비해 미국 태생들이 인종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고, 민족문화 사회화 비율은 낮았습니다. 반면, 한국계 미국인 젊은이들의 경우 외국 혹은 미국 태생에 따른 이 두 척도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부모의 타인종에 대한 불신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한국계 필리핀계 두 그룹 모두 연구 기간 동안 편견에 대한 준비는 감소했지만, 연구 기간 내내 편견에 대한 준비는 타인종에 대한 불신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필리핀계 미국인: 타인종에 대한 불신과 민족적유산의 사회화 촉진은 미국 태생의 젊은이들을 우울증 증상으로부터 보호해주었습니다. 반면 외국 태생의 젊은이들에게는 동일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높은 수준의 민족문화 사회화는 낮은 자살 사고 수준과 연관이 있었고, 편견에 대한 준비는 외국인과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 모두 낮은 우울증 증상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 기여 및 다음 단계

## 연구의 중요성:

박 교수와 그의 팀원들은 미국 태생이 외국 태생의 필리핀계 젊은이들에 비해 더 강한 미국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러한 특성은 차별 경험에 더 취약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라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족적 유산에 대한 사회화는 특히 미국 태생의 필리핀계 미국인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차별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타인종에 대해 불신을 증용하는 양육 방식은 자녀가 사회에서 겪을 차별적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소시켰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타인종에 대한 불신은 자녀들이 선생님이나 또래들과 유익한 관계 형성을 함에 있어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간의 인종차별에 대한 편견 없는 토론은 자녀들을 부정적인 차별의 경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 다음 단계:

박 교수와 그의 팀은 미묘한 형태의 차별과 명백한 형태의 차별을 구별하지 못 한 부분을 인정하며, 자녀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차별에 대처 방법을 찾기위해 더 큰 범위의 차별 경험을 포함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본 연구의 참가자분들은 미국 중서부 출신의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다른 지역에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확대연구는 본 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레퍼런스:

본 연구는 Rutgers University의 조교수인 Michael Park 박사와 MLSAAF 동료들이 MLSAAF 제 1~3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행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Child Development* 논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제 1~3차 종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비는 NIH의 Eunice Kennedy Shriver와 국립정신건강연구소가 지원하고 제공했습니다.

Park, M., Choi, Y., Yasui, M., Hedeker, D., & Specificity, Commonality, and Generalizability in Social-Emotional Development Special Section Editors. (2021). Racial discrimin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racial and ethnic socialization on the mental health of Asian American youth. *Child Development*, 92(6), 2284-2298.